

남양군도로 가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 거렸듯이

손관임

나는 1924년 음력 10월 12일 경남 하동에서 다섯 형제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고, 아래로 남자동생이 세명 있었다. 우리집은 본래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과수원을 하기 위해 진주 공래봉으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는 진주에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경영하였다. 우리집은 호기집이기는 해도 자당채에 땅이 두칸, 마루가 달린 문채에 땅이 세칸, 그리고 아래채라 하는 곡간이 하나 있는 꽤 넓은 집으로 그렇게 잘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부녀 매고와 고장하고 보진 않았다. 땅도 많아서, 가을이면 소작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집으로 가져오곤 하였다. 인부들이 다 농출해 갔지만...

한가지 집안과 생명이란, 어머니가 목에 후이 나는 병(병명은 잘 모르나)으로 내게 누워계셨다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에 갈때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하면서 집안일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공래국민학교도 3학년까지 밖에 못다 갔다. 그때는 거기 안 끌려갈려고 병신한배라도 자금을 보냈지만, 우리집은 어머니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문제의 발견

학교로 집은 떠난 것은 내가 만수로 몇 점군살아던 1941년이다. 걱정은 잘 안되지만, 히로시마에서 핵을 맞을 때 누군가 나무상자에 온 미상은 사워서 우리 집에 가져와서 내이가 그랬다. 불가솔이 아니면 겨울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40대쯤 되는 보리(인부 여자가 전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에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봐주라고 하였다. 머리를 돌리고 하얀 부피스를 입은 단정한 여자였는데, 이런

여자를 대접하기 아플 뿐 아니라 또 어떤 애를 이렇게 널리 보낼 수 있느냐시며 우리한테도 하셨다. 여자는 잠시 나가더니, 우리 전후모를 쓴 일꾼인 남자를 데리고 왔다. 두번째로 수일이 난 오십쯤 되어보이는 남자였는데, 이쪽은 모자(한 명)만 가져온 거였다. 이 사람은 내가 부산에서 핵을 탄 때도 보았고, 학과도 보드나오, 뉴기니아를 전전할 때도 여어 본 보았다.

그가 오더니 내게 전한 나라 브라고 하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버지가 나와 걱정이 되어서 따라 나오시면서 이더를 데리고 가느냐고 하니, 우리가 어느 언덕 아래에 내려가서 앉으니까 편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붙여버렸다. 지금도 아버지 따라 다니다 보면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면서, 사기라 같은 데로 가져가 다쳐갈 끝마는 여자들이 있었다. 한 원영을 되었을까? 내 기억으로 등 배에서 마구잡이로 여녀들을 살고 온 것 같았다. 조그만 활피스를 부치고 앞면서 어머니가 술상자를 했던 술잔이, 학교도 못가고 집에서 농사짓는 거들면 불금이라도 있었었다. 우리 마을에는 결혼은 못했으나 정신이상인 친구도 있었는데 그 해는 모리고 왔다가 되돌려보냈다. 그 때 나는 점점씩 하얀피를 누른 새라복 차림에 머리를 손수레로 묶고 있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모미와 뉴기니아 상을 따라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온 여자들이 한 열차에 모여 있었는데, 모두 열 다섯에서 열 여섯살쯤 되어보였다. 우리

